

同窓會 指標

- ・參與
- ・協力
- ・榮光



・ 본회는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대학교 同窓會報

發行人 崔 主 鎬
編輯人 李 聖 鍾
印刷人 韓 鍾 愚

發行所
서울대학교 同窓會

郵便番号 121-040
서울特別市 麻浦南 桃花洞 18-2
電話 : 702-2233 ~ 5, 717-8536 ~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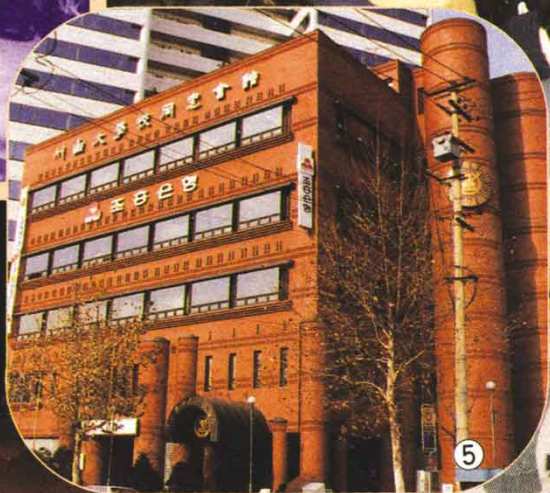
●銀行지로番号 : 7500875
●對替口座서울 : 010017-31-0621565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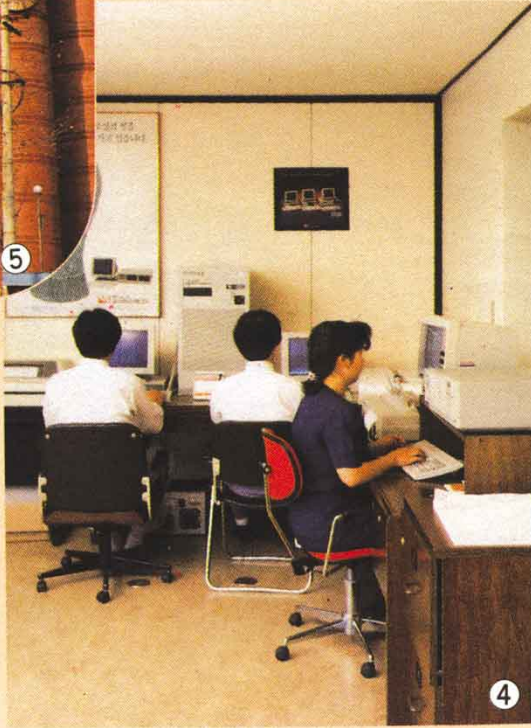
②



⑤



③



④

同窓會 20년 雄飛의 나래 펴다

저무는 89년 올해로 창립 20주년을 맞은 同窓會는 숙원인 會館을 건립하는 등 눈부신 발전을 이룩했다. 90년대의 더욱 힘찬 雄飛를 다짐하며, 지난 20년의 발자취를 더듬어 본다. 사진① 일대 조직개편을 단행, 동창회 발전에 불을 당긴 76년 총회 ② 모교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다 같이 힘을 모은 「모교 방문의 날」 행사(76년 11월) ③ 동창회 창립이후 처음으로 열린 동문교향악단연주회(89년 8월) ④ 事務自動化에 앞장선 동창회 電算室 ⑤ 동창회의 상징인 會館의 웅장한 모습(77년 7월 완공)

冠岳春秋

이제 80년대도 며칠 남지 않았다. 同窓會가 69년에 창립된지 어 인 20년이 흘렀다. 10년이면 江山도 변한다고 했는데 江山이 두 번 변할 연륜을 헤아리는 동창회의 발 전도 눈부시다. 각單大의 동창회를 묶어서 總同窓會로 발족할 당시의 會員은 5만 8천여명이었는데 89년 현재는 會員은 15만 6천여명으로 3 배로 늘어났다.

동창회가 組織을 개편하여 活性化되기 시작한 것은 1976년 4월이었다. 그동안의 各單大同窓會聯合體性格에서 環狀화하여 同窓會의 구성체로 등장한지도 10여년이 되었다. 각 單大동창회 會員을 구성원으로 했던 것을 서울대학교 大學院을 졸업한 자로 하였고 서울대학교 본부 관악캠퍼스에 사무실을 개설하고 總同窓會로 새 출발하였다.

스무해의 回顧와 展望

冠岳으로 校舍가 종횡된 뒤 동창회도 組織화하여 78년에는 8만 7천여명의 會員名簿를 발간하였고 76년에는 同窓會報를 발간하기 시작하여 會報의 結束을 다짐하였다. 創刊號는 타 불로이드 16페이지에 3천부를 발간하였었다. 동창회보는 隔月刊으로 시작하였는바 동창회의 消息과 會報의 動靜 및 會報의 리를 제공하여 동창들의 會報를 얻어 주었다. 創刊10여년에 同窓會報는 月刊으로 5만 부를 발행, 배포하여 동창회의 구심 역할을 하고 있다.

동창회의 資産이나 豫算規模도 엄청나게 늘어났다. 무인문에서 시작 한 동창회 資産은 마포구도화동에 있는 堡地 5배 18평에 建坪 1천 2백평의 同窓會館을 가지게 되었고 컴퓨터를 도입하여 全會員現況을 입력하여 회보발행, 회비납입사항, 주소변경등 관리를 電算化하고 있다. 同窓會館에는 여러 單科大學 同窓會를 입주시켜 그야말로 동창회의 總本山으로 손색이 없다. 창립당시 3배여만의 豫算이 6억 원으로 늘어났고 人員增加 業務現代化를 가져왔다.

同窓會創立 20주년을 기념하여 발간하게 될 會員名簿는 90년초에 발간될 예정이다. 收錄會員數는 準會員을 포함하여 약 18만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會員名簿가 발행되면 全同窓의 현황이 파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크다.

그동안 동창회의 발전에는 박斗乘·閔復基·元容興·金峻成회장들이 못하여 故李錫範상임회장, 崔主鎬會長들의 헌신적인 노고가 컸었다. 會長團과 任員陣들의 희생적인 노력으로 존재조차 없었던 서울大學校同窓會가 이제 본궤도에 오르게 된 것을 기뻐하며 이에 협력해준 회원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해 마지 않는다.

80년대의 동창회는 同窓會의 본래적 활동이라고 할 親善活動도 다 양하게 전개하였다. 開校記念日을 중심한 홈커밍데이행사라든가, 登山大會등이 동창들의 친목을 도모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다만 同窓會 會館建立에 정력을 쏟고 會員名簿작성에 주력하는 나머지 母校支援事業등에 약간의 차질이 있었던 것도 아쉬울 수 없다. 落後一路에 있는 研究與件改善을 적극 지원할 수 없었던 것이 恨이고 전회원을 母校에 초청하는 大行事가 없었던게 아쉽다.

母校에는 國庫豫算 부족으로 두지가에 의한 建物寄贈이 행해지고 있다. 非會員인 三星會長에 의한 福社會館建立이 진행중이고 鮮京經營館이 그 雄姿를 드러내고 있다. 동창회원들도 國庫에만 의존하지 않고도 母校가 발전할 수 있도록 建物과 圖書를 기증해 주어야 하겠다. 菊山法學圖書館과 같은 건물들이 동창회원들에 의하여 계속 건립되기를 바란다.

90년대의 동창회는 地方組織을 大再整備하여야 하겠고 대대적인 母校訪問行事를 통하여 會報의 친목을 도모하여야 하겠다. 또 동창회가 祖國의 미래를 개척하는 데도 크게 寄與하여야 하겠다.

10년만 지나면 2천년대이다. 2천년대의 飛躍의 發展을 위하여 90년대의 동창회는 지난 20년의 經驗을 살려 비상한 나래를 펴야 하겠다. 모교의 영광과 祖國의 발전을 위한 동창회의 역할은 점차 커질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同窓會 20年을 돌아보다

80年代의 마지막 봄을 고하는 己巳年의 이제 서서히 겨울이 가고 있다. 기대와 실망으로 가득했던 1989년 동창회가 창립 20년이라는 뜻깊은 해「成年」을 맞이했다. 그 감회는 더욱 깊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는데 벌써 10년이 두 번이나 변한 연륜이다. 우리 同窓會도 그동안 괄목할만한 成長을 이룩했다. 수월이던 동창회관을 건립했고 동문간의 血脈을 잇는 同窓會館을 태블릿으로 20페이지로 매월 5만여부를 발행하고 있다. 또 동창회 창립 20주년을 기념하는 사업으로 새 회원명부의 발간과 10년기금 조성 등을 목적으로 보다 內實을 다지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本報는 80年代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지난 20년간의 동창회 발전상을 간추려 소개함으로써 90년대의 新한 跳躍을 위한 디딤돌로 삼고자 본란을 마련했다. <편집자 주>

各 大學(院) 별도로 동해오던 동창회가 모교의 綜合化에 발맞추어「서울大學校同窓會」란 이름으로 통합된 것은 1969년 2월 12일이다. 이날 창립총회에 서는 당시 商大同窓會를 이끌던 朴斗養(동문)을 초대장으로 신임하고 동창회의 헌법이라 할 수 있는「會則」을 제정했다. 동창회는 이 회칙에 따라 本部를 서울大學校內에 설치하고는 격조있는 일부를 개설했다. 동창회 창립 후 20년간 이루어진 주요 사항을 간추려본다.

會員數

동창회 창립 당시의 회원수는 前身을 포함한 單大 출신이 5만 3천 8백여명, 大學院(약사학위 수여자 포함) 및 專門大學院이 4천 7백여명으로 총 5만 8천 5백여명이었다.

豫算규모

69년도에 예산규모는 약 3백여만원 정도. 그 수입은 學部 졸업생들로부터 받는 신입회원료와 사업으로 組織強化와 우수졸업생에 대한 표창이었다.

76년 동창회가 조직을 개편하면서 인원부담금제를 신설함으로써 예산규모는 1천 6백여만원으로 늘어났고 이듬해 77년에는 一般會員의 年회비를 정한 500원의 연회비를 동창회 회비의 내리게 했다. 2천 5백만원으로 69년에 비해 두 배 2백여 배나 증가했다.

社 告

“創氏名을 바로잡읍시다”

1990年版 同窓會員名簿 發刊計劃은 同門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순조롭게 진척되고 있습니다.

다만 母校 前身인 京城師範·京城女子師範學校의 演習科, 本科, 講習科(1941~1945년)出身 同門中 日政時創氏名을 아직까지 本名으로 바로 잡지 못한 분들이 계시기에 이번 기회에 호적등본을 첨부, 同窓會事務處에 오셔서 合法的인 節次를 밟아訂正해 주시기 바랍니다. 確認節次를 畢하지 않으신 同門들은 創氏名 그대로 登載될 것이오니 諒解 있으시기 바랍니다. 接受 期間은 오는 12月30日 까지 입니다.

1989年12月 1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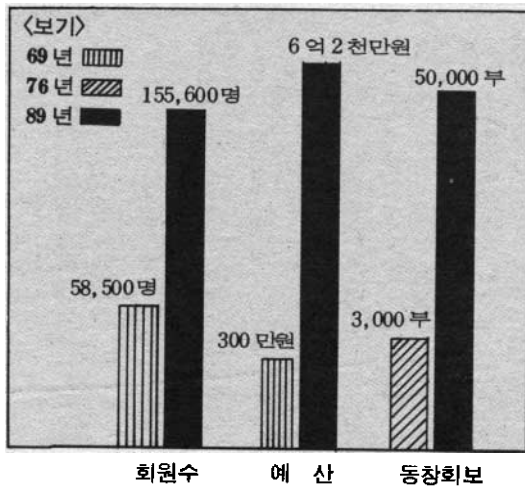
서울大學校同窓會
會長 崔主鎬

會報 5만여부 발행, 會館 마련
會員 16萬餘人, 예산 6억여원

터였다. 그러나 예산 부족으로 紙面을 16면에서 12면으로 줄였다. 그러다가 1982년 5월호부터 다시 16면으로 증편했고 이어 87년 1월호 4면을 더 증편했다. 그리고 동창회 창립 20주년을 기념하는 사업으로 2, 3월호에는 회원들에게 신년 賀意의 다. 특히 이번엔 발간되는 회원명부는 發刊비 전액을 廣告料로 충당하고 명부판대금은 전액 10년기금 조성으로 마련했다.

가장 먼저 동창회 회관에 앞섰고 向後 1기 2, 5백 18坪의 대지에 지하 1층 지상 5층 연

었다. 당시의 회원수가 8만에 육박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창간호의 발행부수는 3천에 그쳤다. 창간 초기에는 여러가지 어려움사정으로 인해 隔月刊으로 발간밖에 없었고 한때는 表紙를 黑白으로 내기도 했다. 80년 3월부



하고 있다. 발행부수는 매호 5만~6만 정도. ◇會員名簿 발간간 同窓會는 지난 78년 모교 개교 이래 처음으로「서울大學校 同窓會 員名簿」를 발간했다. 지금까지 單科大學(院) 별 명부는 있었으나 새 명부는 늘어났다.

업으로 제2판이 될 새 회원명부의 간행에 본격 착수했다. 동창회에 서는 지난해 여름 컴퓨터 시스템을 갖추면서 업무체계를 명부간행체제로 전환시켜 현재 명부발간이 거의 마무리 단계(校正)에 있다. 새 명부는 늘어났다.

텔 예정이어서 그 발간 의의는 더욱 크다 고 하겠다. ◇同窓會館 建立 우리 同窓會는 他大學에 비해 그 발족이 年淺한 것은 사실이나

컴퓨터 2台로 事務 自動化 이룩
明年봄 목표로 名簿발간 서둘러

건평 1천2백여평으로 세워진 이 회관은 시가로 따져 70여원을 호가하는 건물도 평가받고 있다. 이 회관은 會長團을 비롯한 有力同門들의 贊에 의해 82년 9월 27일 韓國土地開發公社로부터 약 4억원에 부지를 매입함으로써 그 터전이 마련됐다. 그 후 崔主鎬회장이 회관건립비 15억을 10억을 최첨단으로 1년 4개월의 공사 끝에 87년 6월말 완공을 본 것이다.

事務自動化 완료

同窓會는 지난 75년 모교의 綜合化를 계기로 재출발한 이래 날로 커지고 內實이 기해져 발전의 터전인 會館이 마련되고 會員數도 16만에 육박하게 되었다. 이렇게 事務가 대량화됨에 따라 동창회에서는 지난 88년 7월 초 금성마이크로 컴퓨터를 구입, 사무자동화시대의 막을 열었다. 이 컴퓨터의 설치로 동창회 업무의 新技術은 물론 會報의 發刊과 名簿作成, 會費納付 처리와 그 상환의 파와 등 막대한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고 있다. 동창회에서 또 지난 5월 새명부의 발간으로 인가 폭주함에 따라 대형컴퓨터인 리시스템Ⅲ(16비트, 40메가바이트)를 구입하여 새명부 발간에 활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16만 건의 학적사항이 입력되었고 곧 명부가 발간되는대로 동문들의 근구치 및 주소등이 빠짐없이 입력될 예정이다.

同窓會는 이외에도 10

여기금조성, 친목사업, 모교지원사업, 후배들을 위한 장학사업 등 공적사업에 여러가지 사업을 다들기 위해 소개하기로 한다. 지난 20년간의 발전상을 저술한 90년대의 新한 도약을 거듭 기대해본다.

決算總會・理事會등 잇따라 열려

한 정기총회의 개최일정
에 대해 토의하는 한편
12월중에 송년회를 개회
하기로 결의했다.

이날은 임원개선을 결
정(佐賢) 후 6시 庶民
회관에서 금년도 정기
총회를 개최하고 89년도
등장회 사임 및 수지결산
자리를 밝히게 했다.

한편 대안취반간담회
원영부가 총회에 참석한
중문준에게 배부되어 더욱
임되고 위주화(장화고교)를
개최하였다.

특히 이날 총회에서
임원개선이 이뤄졌는데
장과 부회장단 일부가
임되고 위주화(장화고교)

「**向上的**」**순서** **友誼** **재확인**

商大13회 卒業30周年 기념행사 성료

한편 同會에서는 금년
이리에서는 89년도결
산안및 90년도 예산안이
심의됐으며 同窓會 기금
조성과 새 회원들부 제
작에 관해 폭넓은 의견
을 나누었다.

그런데 연우회의 총수입은
회원관내 광고료 협찬
금등을 합쳐 4천6백여
만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차별이 있을은 대판요인
기반을제작비 연금
비 리셀비 그리고 모
리)에서 열렸다.

商大 13회 同期會(회
장 襄柱元)의 총일30주
년기념 HOME COM
ING 행사가 지난 10월
22일 행사 종합홍보소재서
술사대부중(舊모교장대자
리)에서 열렸다.

味로 사제간의 情誼를 후
배 나눈후 기념식에서韓
회장은 개사사를 통해이의
모든것은 바필소
사제간·동문간의
있는 관계는 바필소
는 것'이라고 역설하고

30년 전 한창 사색을 하고 있던 나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젊은이들에게서 어떤 차이를 느끼지 못했다. 그러나 이 시대의 젊은이들은 과거 세대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그들은 과거 세대와는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그들은 과거 세대와는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孫海東 25만원
李禮植 10만원
登山大會추가협차
지난 10월22일 개최된

최근 동창회 임원들 사
친, 동창회를 찾아다녀
이권철 등을 하는 사례
가 있다고 하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ROT C출신

「서알會」발족

母校 ROTC제대생들
로 구성된 서양회(서울
대 앞오씨포임)가 발
족되었다.

門親陸登山大會는 각계
동문들의 뜨거운 협찬으
로 대성황을 이루었는데
대회가 끝난후에도 孫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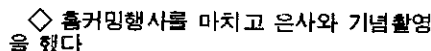
[illegible]

한일관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孫海東 25 만원
李禮植 10 만원
登山大會 추가 협찬

최근 동천회 임원들을 초청 동문들을 찾아다니며 이권청탁을 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니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데오현 36층 버클리실에
서臨時理事會를 개회하
였는데 이사리의 俞
장을 비롯하여 母校行
政大學院長 姜信澤 등 40여명의 代表가 참석해
조찬을 겸한 이날 이
사회의는 釜山대학교의
영속자인 발전을 위한의
견주령과 함께 同大學院
의 發展研究委員會 구성
기로 확정했다.



여 高承俊, 朴相稔, 李海東, 李基俊, 朴秉熙, 邊衡尹, 李廣俊, 고수동, 옛 慰節翁을 모신 이자각의는 부부동반으로 참석한 동문의 수가 1백66명이라 해 조상제사를 후조였거니와 이 자각의 후조였단 말은 분명히 밝힌 바가 없고, 유정공의 거주하는 등 문물도 참석해 더욱 자리를 넓혀 주었으니 30여만의 정객 親朋을 불러서 그대모 간직하고 고을 고령에 돌보아고 벼 밭 갈하여 짓기도 했다.

술현의 차진진 山海珍

모교 명예교수 李熙昇 박사 별세

원로국어학자 一石 李熙昇 박사가 지난 11월 27일 하오 7시 서울鍾路區東榮洞 25의 1 자택서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3세.

마련등
살고닭아

[illegible]

테니스熱氣겨울날씨녹여

60여명 참가 우승 金商俊·韓穗寅組

師大

師大 同窓會(회장 朴智洙)의 제12회 동문대회를 니스대회가 지난 11월12일 오전9시부터 서울사대부고 테니스장에서 열렸다.

[illegible]

30년 동안 조선의 문물
 城사범과 梨花의 전에서
 교편을 잡았는데 이때
 梨花의 전 동교로 수었다
 시인 鄭芝溶이 一石의
 란 아호를 지어줬다.
 교편생활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朝鮮의 학회
 에 참여, 35년부터는 각
 사장을 맡아 崔鉉培·

맛평

金允經・鄭寅寧 선생들과
한글보급운동을 전개하
면서 한자문화유산의 중요
를 다 전했

1942년에 日帝

의 이념바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해방 때까지

3년간 육고를 치르기도 했다.
광복후 모교 문리대 교수로 취임, 후진양성에 힘썼으며 19년 정년퇴임했다.
모교 재직중 「조선어

장인으로 단군선조전립후
단군의 얼을 계승하는
데도 앞장섰다.
동창회 李聖秀(성인부
회장, 吳興泳(수처장은
11월29일 故人의 빈소를
찾아 조무했다.
한편 장부인 故李熙
昇박사에게 국민훈장무
궁화장을 추서했다.

서울大學校의 뿌리

18

韓 基 彦

(49년 師大卒 · 母校교수)

공과대학의 뿌리는 가
이 서울大學校의 뿌리는 가
공과대학의 뿌리는 가
이 서울大學校의 뿌리는 가

학, 도목, 건축 및 광산과
라는 다섯 학과를 두게 되
었고, 應用水學科라는 요
업, 應用水學科라는 요
업, 應用水學科라는 요

工/科/大/學

城大理工學部 高工鑛專이 前身
1946년 발족, 金東一 학장 취임

여기서 해방 당시 京城大
學 理工學部의 정점에 대
하여, 李華榮교수(化學工學
科)는 다음과 같이 묘사
하고 있다.

『1945년 8월 15일 정
오 12시, 京城帝國大學 理
工學部 제1호관 앞에서 전
학부 학생과 교직원들이 집합
하여 중대방향을 틀게 되어
있었다. 이것이 바로 일련
전환의 육성으로 알려진 무
조건 항복의 초여방중이었
다. 이것을 미리 짐작한 조
선인 학생들은 일련전환 조
건의 최종 발화자인 학생
들이 있을까와 善工大
사 자리에 인위위 모
았. 그들이 되돌아 오는

의전인 1946년 7월 3일
첫 졸업생을 냈지만 정성
대화는 이것이 마지막이었
다. 그리고 안감화련 표
현을 하고 있다.

이 졸업생을 낸지
고 있음을 알게 한다.
그러나, 공과대학은 현재
건축학과를 비롯하여 공업
화학, 금속공학, 기계공
학과, 기계설계학과, 무기재
료공학과, 산업공학과, 섬유
공학과, 원자핵공학과, 자원
공학과, 전기공학과, 전자공
학과, 컴퓨터공학과, 제어계
측공학과, 조선공학과, 토목

그라기에 지금의 18학과
중에는 이 가운데의 특화
과로부터 분화된 것도 있
고, 또 때로는 도중에 신
설된 工業教育科가 폐지되
는 것을 계기로, 대신 공
학연구에 필요한 새로운 工
學관계 학과가 여러 신설
됨으로써 탄생한 학과도 있
다.

工業教育科로 말하면 1
962년 신설 당시, 자원
은 22년 공업고교 교사양
성이 시급했던 데서 나온
것인데, 공업교육과가 공
한 사항 중 하나로 서울大
學校 30年史(68)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화성지도의 교육개발
하기 전에 매년 공업고교
교사양성 100명, 1962
부담으로 공업고교교
장 강습을 실시하여 197
6년 사이에 강습을 수강
한 사람이 1천3백9명의
달하고 있다. 또 국제기능
올림픽대회에 파견한 선수
를 지도함으로써 선진국인
영국, 프랑스, 일본 선수들
다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되
었음은 특기할 일의 하나
이다.』라고 하였다.

이러한 공과대학의 뿌리
는 공과대학의 뿌리는 가
이 서울大學校의 뿌리는 가
공과대학의 뿌리는 가



◇ 공동동시절의工大 캠퍼스

建築, 原子核, 컴퓨터學 등 18개學科로 구성
工學발전에 긴요한 새로운 專攻분야 늘어

공과대학의 뿌리는 가
이 서울大學校의 뿌리는 가
공과대학의 뿌리는 가
이 서울大學校의 뿌리는 가

공과대학의 뿌리는 가
이 서울大學校의 뿌리는 가
공과대학의 뿌리는 가
이 서울大學校의 뿌리는 가

공과대학의 뿌리는 가
이 서울大學校의 뿌리는 가
공과대학의 뿌리는 가
이 서울大學校의 뿌리는 가

공과대학의 뿌리는 가
이 서울大學校의 뿌리는 가
공과대학의 뿌리는 가
이 서울大學校의 뿌리는 가

——各계同門의 所感을 듣는다

무서운 80년대와
변화를 우리는 한
新時代를 겪었다. 維
人權의 자치면서 自由와
獨裁體制가 종언을
하는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리하여 잠시나 198
0년초에는 봄이 온것으
로 한껏 부풀어왔고 모두
가 의암에서 벗어난 自由
와 和平이 넘치는 따뜻한
공기를 만끽하고 즐겼다.
이런 분위기에서 학계권
력은 抑壓받았던 政治人들
이었으며 3金氏는 제세상

〈威正篇동문〉

만민양 당장 大權을 잡으
 듯 설치대면서 아무런 비
 전도 없이 正義를 외치고
 인權을 외치고 自由를 선
 언하였다.

新軍部の 속셈도 모르는
 이들 지도자들의 의제합동
 모르는 야욕은 5월의 光
 州犧牲을 계기로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大작을 드러내
 新軍部는 維新政權을 하
 하는 獨裁로 우리들을 질
 케 하지 않았는가! 이런
 한 질곡속에서 학생들의
 을 던진 抗暴로 드디어 6
 · 29自由를 얻어냈고 또다
 시 自由를 呼吸할수 있는
 기회를 맞게되었다.

그런데 우리의 理想은 어
 떠한가? 5共計算이 무엇
 이고惡法의 개폐가 진정
 이었음에 學生들의 勤學
 병 투쟁은 계속되고 勸學
 者를 비롯한 개개층의 勸
 구가 일시에 분출하여 國
 民經濟가 혼란을 지경에

〈李基春동문〉

크렸다. 政治人은 무력하고
政府는 아무런 대책도 제
시하지 못하여 先進國의 문
타에서 앞지를 수 없다. 우리
는 이 와달이하여 90년대
무엇을 이룩하고 나라를
멀게 發展시키나갈 것인가

咸 〓 各 계층

李 〓 참된

政治人 學生 勤勞者 모두
가 지니친 欲望을 여하하
지 아니하면 우리의 生存
조차 위협받지 않을가 걱
정된다.

李 基 春 〓
(65년 師大卒・母校家政
大學長)

아제 개혁과 개발, 민주

〈玄在賢書〉

화의 소용돌이속에서 80년대의 막이 내린것하고 있다
 80년대에는 종언정원제의 실시등으로 대한국의 정원이 대폭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치열한 경쟁률을 빚어 대학입학자원이 었는데
 欲求분출
 同体的식
 마침내 것을 보면서 새삼스럽게 서울대의 틀은우리의 학생들이 얼마나 귀한 인적자원인가를 느끼게 된다
 이 노배로운 인재들에게 과연 나쁜 배움의 한 문으로 나쁜 선택으로서 그리고 먼저 배운 선택으로서 무엇을 얼마나 배울것을수

인생 불체

.....한으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판과 컴퓨터에서 맑은 공기를 호흡하며 일할 수 있는 일터나 큰 회사 일터가 충분히 조성되고 있는가? 또 한층 순수에서 양심과 이성의 충실화하는 좋은 사상을 함양하고 함께 일하며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제는 내가 받은 혜택 소유하고 있는 자원을 나의 후배와 제자 그리고 동료에게 받고 있는 이웃과 더불어 나누어야 할 것이 아닐까?

이제 90년대의 서막이을 치켜들며 시점에서 밝고 새

經濟成長

사랑으로

01/10

80년대를 돌아보면 가
동화의 10년이었고 그
최고의 해였다고 과거
몇십년의 해와만 다를
화하의 폭이 크고 회
도가 빠르다고 알고는
만 특히 지난 10년간의
국내외적으로

우려돼

매맷길

난 변화가 일어난 시대
있었다 국제적으로도 20세
를 풍靡하던 공산주의가
피를 목전에 두고 있었을
2차대전 이후 세계를兩
하에 군림하던 美蘇 양
의 퇴조와 함께 아이러
칼하게도 대전패전국인의
과 독일이 다시금 부상
면서 새로운 세력질서의

이러한 발전과 격동의 시기에 中央銀行과 證券來去所의 책임인자로 불려가면서 通貨價値의安定과 資本市場의發展에 미력이나마 기여할 수 있었지만, 대개 남다른 감회와 보람을 느낀다. 다만, 80년대를 보내면서 한가지 아쉬운 것이 있다면 民主化推進過程에서 모든 경제주체가 자기몫 찾기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우리경제의 다양한 발전의 장질적력이 과격보다 약화되고 성장전망도 그리 밝지않은 양상을 상태에서 90년대를 맞이하는 점이다.

[illegible]



▲柳達永 (36) 農
大卒・全國
農業技術者
協會會長
11월10일
음력10월12일경자년
30회 전국농업기술자
대회를 개최했다.



▲李鍾根 (39) 師
大卒・中央
教育振興研
究所會長・
本會理事
11월10일
에서 성동구 왕십리
711로 이전. 전화
29618000.



▲李恒寧 (40) 法
大卒・前弘
益大總長
11월11일
이 사장으로서 11월
2시 世界日報강에서
『국가 발전의 시금
석』을 주제로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申鉉鎬 (43) 法
大卒・三星
物產會長・
本會理事
11월15일
『파리에서 열린
전국농업기술자
대회』를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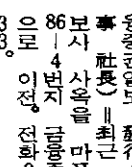
▲玄勝鎬 (43) 法
大卒・翰林
大總長
11월15일
『파리에서 열린
전국농업기술자
대회』를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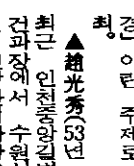
▲金永敦 (49) 師
大卒・大韓
三樂會會長
・本會理事
11월10일
대한교육연합회
창립20주년
기념식
을 가졌다.



▲李應百 (49) 師
大卒・漢陽
大教授・本
會編輯委員
11월10일
文學振興會
회장으로서
28.29일
세미나를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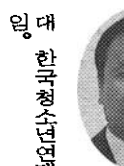
▲丁六秀 (51) 商
大卒・금
영증권인
사(社長)
11월10일
『4번지
금영증권인
보』로
이전. 전화
3381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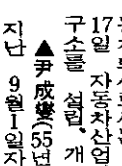
▲趙光秀 (53) 醫
大卒・인
진중앙병원
원장
11월10일
『한국의
진단』을
개최했다.



▲文胎甲 (54) 商
大卒・前
울산新聞
社長
11월10일
『한국의
진단』을
개최했다.



▲金善弘 (55) 工
大卒・前
産業社長・
本會副會長
11월10일
『한국의
진단』을
개최했다.



▲尹成俊 (55) 工
大卒・前
고등교육
장으로서
11월10일
『한국의
진단』을
개최했다.



▲鄭漢模 (55) 文
理大卒・前
文公長官・
本會理事
11월10일
『한국의
진단』을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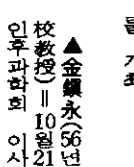
▲安鍾允 (55) 法
大卒・漢陽
大教授・
本會理事
11월10일
『한국의
진단』을
개최했다.



▲田永秀 (55) 商
大卒・住宅
銀行社長・
本會理事
11월10일
『한국의
진단』을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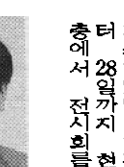
▲張潤錫 (55) 醫
大卒・母
校大教授
11월10일
『한국의
진단』을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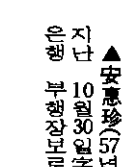
▲金鍾永 (56) 醫
大卒・母
校教授
11월21일
『한국의
진단』을
개최했다.



▲朴錫煥 (57) 美
大卒・동
덕여대교수
11월20일
『한국의
진단』을
개최했다.



▲金永植 (57) 師
大卒・前
文公長官・
本會理事
11월10일
『한국의
진단』을
개최했다.



▲全順奎 (58) 文
理大卒・
京畿道
11월10일
『한국의
진단』을
개최했다.



▲張煥燾 (60) 法
大卒・前
文公長官・
本會理事
11월10일
『한국의
진단』을
개최했다.



▲吳萬鉉 (60) 商
大卒・前
文公長官・
本會理事
11월10일
『한국의
진단』을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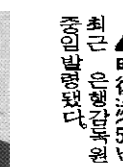
▲張基旭 (61) 法
大卒・前
文公長官・
本會理事
11월10일
『한국의
진단』을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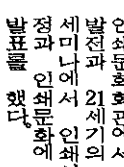
▲李鍾祥 (63) 美
大卒・母
校大教授
11월10일
『한국의
진단』을
개최했다.



▲姜信澤 (59) 文
理大卒・母
校教授
11월10일
『한국의
진단』을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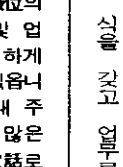
▲全泳杓 (60) 文
理大卒・前
文公長官・
本會理事
11월10일
『한국의
진단』을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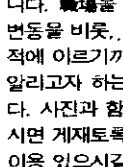
▲姜宗遠 (60) 法
大卒・前
文公長官・
本會理事
11월10일
『한국의
진단』을
개최했다.



▲張煥燾 (60) 法
大卒・前
文公長官・
本會理事
11월10일
『한국의
진단』을
개최했다.



▲吳萬鉉 (60) 商
大卒・前
文公長官・
本會理事
11월10일
『한국의
진단』을
개최했다.



▲張基旭 (61) 法
大卒・前
文公長官・
本會理事
11월10일
『한국의
진단』을
개최했다.



▲李鍾祥 (63) 美
大卒・母
校大教授
11월10일
『한국의
진단』을
개최했다.



▲李鍾祥 (63) 美
大卒・母
校大教授
11월10일
『한국의
진단』을
개최했다.

靜 動

이欄은 同門들의 동정을 全 회
원에게 알리기 위해 마련된 것입
니다. 職場을 옮기셨거나 職位의
변동을 비롯, 개인의 활동 및 업
적에 이르기까지 보다 상세하게
알리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음니
다. 사진과 함께 記事를 보내 주
시면 게재토록 하겠읍니다. 많은
이용 있으시길 바랍니다. 電話로
동보해 주셔도 됩니다.
電話: (702) 2233~5
(717) 8536 ~ 7



▲金容元 (64) 法
大卒・大
學士
11월10일
『한국의
진단』을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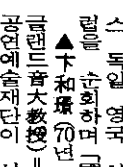
▲柳煥洙 (65) 法
大卒・前
文公長官・
本會理事
11월10일
『한국의
진단』을
개최했다.



▲金顯量 (66) 商
大卒・前
文公長官・
本會理事
11월10일
『한국의
진단』을
개최했다.



▲文一校 (68) 音
大卒・前
文公長官・
本會理事
11월10일
『한국의
진단』을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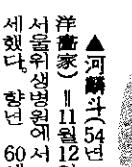
▲玄在賢 (71) 法
大卒・前
文公長官・
本會理事
11월10일
『한국의
진단』을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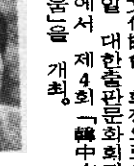
▲金煥吉 (77) 大
學院卒
11월10일
『한국의
진단』을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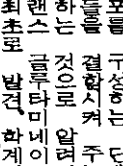
▲河崎斗 (54) 美
大卒・西
洋畫家
11월12일
『한국의
진단』을
개최했다.



▲河崎斗 (54) 美
大卒・西
洋畫家
11월12일
『한국의
진단』을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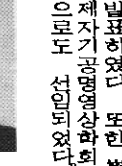
▲朴相哲 (73) 醫
大卒・母
校大教授
11월15
일
『한국의
진단』을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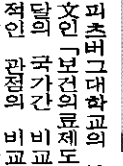
▲崔炳寅 (74) 醫
大卒・母
校大教授
11월25일
『한국의
진단』을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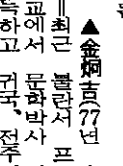
▲南富權 (76) 社
大卒・度
大行政
11월25일
『한국의
진단』을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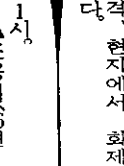
▲玄在賢 (71) 法
大卒・前
文公長官・
本會理事
11월10일
『한국의
진단』을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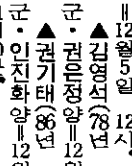
▲金煥吉 (77) 大
學院卒
11월10일
『한국의
진단』을
개최했다.



▲玄在賢 (71) 法
大卒・前
文公長官・
本會理事
11월10일
『한국의
진단』을
개최했다.



▲玄在賢 (71) 法
大卒・前
文公長官・
本會理事
11월10일
『한국의
진단』을
개최했다.



▲玄在賢 (71) 法
大卒・前
文公長官・
本會理事
11월10일
『한국의
진단』을
개최했다.

揭示板

▲玄在賢 (71) 法
大卒・前
文公長官・
本會理事
11월10일
『한국의
진단』을
개최했다.

▲沈載亨
(63년) 文

통신선진화 주도한 電子界의 권위
“박람회세기 産業技術 도약 기대”

1시 30분

▲박광호(84년 社會大卒)
군·정미예(88년 齒大卒) 양
12월9일 오후 1시

▲박성진(87년 自然大卒)
군·진유경양 12월9일 오후
2시 30분

名譽教授칼럼

忙閑 3年



李鍾珏
(前工大 교수)

停年退任 때, 나는電子工學科 학생들에게 한 고별강연을 했다.『정년퇴임은 예정된 과정으로, 별것이 아니다』라고 큰소리를 쳤지만,

재직기간중에는 매일 같이 드나든 학원지평 밖에서, 『정년퇴임』의 정면의 지금 가보면, 그렇게 아름답게 느껴질 수가 없다. 사실 서울대학교가 처음 이사할 때만 해도 삭막한 감이 없지 않았던 것이다. 서울대학교가 이사하여, 교육의

하는 후회와 양심의가책을 떨칠 수 없다. 그 학생은 지금 어디사무엇을 하고 있을까? 나를 얼마나 원망하고 있을까? 대학에서 좋은 선생을 접하고, 하여 학생을 입학시켜야 할 터인데, 중도탈락을 전제로 하여 입학시키는 것은 큰 모순이 아닐까?

그런데 이상한 것은 정년퇴임후에도 나의 이러한信念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교육자의 서머니에, 家庭敎育이 으뜸인데, 敎育學을 배우고, 자녀를 교육시킨 어머니가, 몇이나 되겠는가?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과 애정, 어머니를 훌륭하게 키웠는가? 그리고 재직기간중에 제자들에게 더 많은 사랑과 열정을 심어

시대착오적인 생각인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老人은 尊敬의 대상이었는데, 요사이 老人이 同情의 대상으로 전락한 감이 짙다. 나도 不得不得 老人의 대열에 끼게 되었지만, 여생을 동정받으면서 살아 가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다. 경로우대 등을 가지고 버스를 무임승차하는 노인들, 아하는 운전기사는 거의 없는 것 같다. 언

世代間 갈등 사랑으로 해결해야

老年層은 尊敬의 대상서 除外돼

를 할 것이 분명하다. 나는 약 40년간이나 敎育界에 몸담아 왔다. 그러나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나는 사랑과 애정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나는 敎育學을 배운 터인데, 『내가 주어진 과제를 충실히 해내면』이것이 나의 자부심이다.

주지 못한 것이 못내 한스럽기만 하다. 나는 비단 교육자로써 뿐만 아니라, 人生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사랑과 氣概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나는 老境에 접어들면서, 敎育界에서 오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이보다도 더 가슴 아픈 것은, 나의 재직기간중에 제자들에게 사랑을 많이 해 주었다. 물론 내가 속

제가 同輩 친구 셋이서 회의에 불려갔다가 귀로에 버스를 기다리는 데 여러 대의 버스가 하나같이 정류소를 그 대로 통과하여, 곤경에 빠진 일이 있었다. 우리 사회에서 노년층이 와 같이 동정의 대상이 아닌 기피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학생들은 공부만 잘하면 아니라, 성격이 온순하고 심장이 신랄하여, 사제간의 이런 문제를 가지고 갈등을 일으키는 일은 없었지 않은 한 번도 없지 않은 우리 사회에서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잠시 이 에 대한 나의 短見을 피려하고자 한다. 세대간에 人生觀이나 價値觀의 차이가 생기는 것은 인류문명의 발달과정으로 보아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라 볼 수 있다. 세대차이와 관련하여, 옛날 漢文에 서 읽은 『衣食의 足하여 禮節을 안다』, 『恒産이 없어도恒心이 있을 수 있다』라는 뜻을 가진 語句가 생각난다. 그런데 이 교훈적인 구는 지금 세상에 통용될 수 있는 것인지, 진리의 의인성(眞實性)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는 반대로 국민도덕은 땅바닥까지 떨어진 감이 있다. 그리고 물질적인 풍요는 인간의 도덕성을 오히려 퇴락(退落)시키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것으로부터 생기는 公利를 인하여 自然生利를 파파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그러므로 위대한 聖賢의 勸戒의 眞意를 성세대에 계는 아지도 실체(實體)로써, 자라나는 新世代에게는 아무런 실득(實得)도 갖지 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우산의浪漫

내가 어렸을 때는 이슬비 내리는 이슬이... 『우산』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나는 왠지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진다. 아마도, 나는 우산을 비를 막아주는 도구로만 보지 않고, 그것을 통해 느끼는 어떤 감정을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우산은 비를 막아주는 도구이지만, 그것은 또한 우리의 삶을 지키는 방패이기도 하다. 우리는 우산을 통해, 비를 막아내고, 우리의 삶을 지키고 있다. 우산은 우리의 삶을 지키는 방패이지만, 그것은 또한 우리의 삶을 지키는 방패이기도 하다. 우리는 우산을 통해, 비를 막아내고, 우리의 삶을 지키고 있다. 우산은 우리의 삶을 지키는 방패이지만, 그것은 또한 우리의 삶을 지키는 방패이기도 하다. 우리는 우산을 통해, 비를 막아내고, 우리의 삶을 지키고 있다.



세월이 흐르면, 나는 자... 『우산』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나는 왠지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진다. 아마도, 나는 우산을 비를 막아주는 도구로만 보지 않고, 그것을 통해 느끼는 어떤 감정을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우산은 비를 막아주는 도구이지만, 그것은 또한 우리의 삶을 지키는 방패이기도 하다. 우리는 우산을 통해, 비를 막아내고, 우리의 삶을 지키고 있다. 우산은 우리의 삶을 지키는 방패이지만, 그것은 또한 우리의 삶을 지키는 방패이기도 하다. 우리는 우산을 통해, 비를 막아내고, 우리의 삶을 지키고 있다.



黃弼昊
(63년 文理大卒 · 東國大敎授 · 수필가)

특히 하지 못하도록 전부... 『우산』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나는 왠지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진다. 아마도, 나는 우산을 비를 막아주는 도구로만 보지 않고, 그것을 통해 느끼는 어떤 감정을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우산은 비를 막아주는 도구이지만, 그것은 또한 우리의 삶을 지키는 방패이기도 하다. 우리는 우산을 통해, 비를 막아내고, 우리의 삶을 지키고 있다. 우산은 우리의 삶을 지키는 방패이지만, 그것은 또한 우리의 삶을 지키는 방패이기도 하다. 우리는 우산을 통해, 비를 막아내고, 우리의 삶을 지키고 있다.

을 절대로 현실로 바... 『우산』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나는 왠지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진다. 아마도, 나는 우산을 비를 막아주는 도구로만 보지 않고, 그것을 통해 느끼는 어떤 감정을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우산은 비를 막아주는 도구이지만, 그것은 또한 우리의 삶을 지키는 방패이기도 하다. 우리는 우산을 통해, 비를 막아내고, 우리의 삶을 지키고 있다. 우산은 우리의 삶을 지키는 방패이지만, 그것은 또한 우리의 삶을 지키는 방패이기도 하다. 우리는 우산을 통해, 비를 막아내고, 우리의 삶을 지키고 있다.

을 다해야 할 것이다... 『우산』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나는 왠지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진다. 아마도, 나는 우산을 비를 막아주는 도구로만 보지 않고, 그것을 통해 느끼는 어떤 감정을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우산은 비를 막아주는 도구이지만, 그것은 또한 우리의 삶을 지키는 방패이기도 하다. 우리는 우산을 통해, 비를 막아내고, 우리의 삶을 지키고 있다. 우산은 우리의 삶을 지키는 방패이지만, 그것은 또한 우리의 삶을 지키는 방패이기도 하다. 우리는 우산을 통해, 비를 막아내고, 우리의 삶을 지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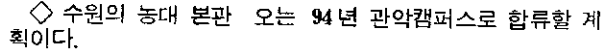
[illegible]

다
현재 모교측이 마련한 기

퍼스트, 이진시키되 동상
슬립 무장 동물형원 동천장
슬립시설은 그대로 수원에
속시키고 확충하는 것으로
있다.

모교측은 동대시설에 5만
6천원, 수의대시설에 2만3
천원 등 모두 7만9천원(약
2만4천명)의 부지가 필요
할 것으로 예상, 공대건조면
적, 관악산 칠성계곡내 부지
3만평을 확보, 이곳으로 동
수의대를 이전할 계획이다.

모교는 동대 캠퍼스 이전의
2백90여원, 동상 목장 연
습원 1천여원, 수의대 이천에
1백40여원, 수의대 이전에
98여원, 동물병원 시설확충
에 33여원 등 총 6백40여원



북한에서 남한으로의 이주

원인 소요일 것으로 보고이
수원법원 소고지대 대금 5
백 60여만원, 국고지출 대금
타 농대보유 교지 매각대금
73여만원을 충당키로 했
다. 그러나 이같이 이전이
기구 설립등 자체적인 노력
이 뒤따라야 하겠지만 법률
제14조 판례처와 협의하
는 등 거쳐야 할 단계가 많
다. 먼저 수원법원소장을
아 캠프의 이전비용으로 쓰
기 위해 소관 국회에서 이
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
모교는 국립대
화이므로 특별회계법이 제
정된 것을 전후 국유재산 매
각대금은 재부부의 일반회
세입금에 들어가기 때문에
또한 감목기판인 문교부의
인을 얻어야 할도 물론이다.

[illegible]

국내대학최초 學術研究지원 전담

[illegible]

(장 등)에 관련된 업	구조관리와 성에도 크게 이로 보인다.	연구분야는 연구 진흥과 연구지원과를 두 개 되는데, 연구진흥과는 ▲연구자원의 확충 ▲연 구비의 배정 ▲국제학술 회의 참가 지원 ▲학술회 의 개최 지원 ▲국제수 준의 정기간출지 육성 ▲교수연구업적진 발간 ▲연구결과평가의 판 ▲연구기회의 확대방안 연구지원과 연구지원과 ▲연구지출비(전 자계산소, 실험동물사육 장 등)에 관련된 업
---------------------	-------------------------------------	--

무 ▲연구소 지원 및 평가 ▲연구기의 공유 유지 및 관리 ▲각 공단의 연구용 도시설계 및 도공 공제 지원 ▲연구비의 집행의 투명 ▲연구지원 을 위한 유관기관의 협력을 다짐하게 된 것
 한편, 박우성 서울연구원장은 원로연구원과 파견 연구원 800명부터 내부자 정을 제정, 연구자를非法定기구로 운영해 온 다

이인 박애도 개천사에다 라 기획단·연구자가 소인 기원사부를 총괄하게

電 話 番 號 電 子 式

모교 전화가 전자식 모교로 교제함에 따라 현 재 사용중인 모든 전화 번호가 11월 20일자로 전 면 바뀌었다.

이 번 전자식 전화기교

의 체제인 기제 전 화 기의 노후와 각종 연구소 기관실험에 따른 전화회 선의 수급급증으로 통화 소용이 원활하지 못하고

照田守, 기계문화과 李澤

면면경
환기로 교체

기	관	명	전화번호	기	관	명	전화
총무	장	실	880-5001	법사	장	880-	
부대교	총장	880-5004	과	대대	화	"	
교과	원	880-5007	법	대대	화	"	
학학	처	" 5008	학	대대	화	"	
연연	부처	" 5009	정	대대	화	"	
기기	부처	" 5010	경	대대	화	"	
사도인사	부처	" 5011	화	직	과	"	
자자	부처	" 5016	수	업	과	"	
가가	실	" 5017	후	생	과	"	
경공	장	" 5012	장	생	과	"	
영영	장	" 5018	담	관	과	"	
공공	장	" 5013	담	관	과	"	
	관	" 5280	진	관	과	"	
	화	" 6001	진	관	과	"	
	화	" 6300	진	관	과	"	
	화	" 6500	진	관	과	"	
	화	" 6800	진	관	과	"	
	화	" 6900	진	관	과	"	
	화	" 7001	진	관	과	"	
	화	" 7450	진	관	과	"	

鄭英昊 교수 등 8명
名譽敎授 추대
지난 8월31일자로 정
신물학과 鄭英

가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지	치	국	농	화	화	화	화
난	의	어	하	하	하	하	하
10	학	교	과	과	과	과	과
월	과	과	과	과	과	과	과
13	과	과	과	과	과	과	과
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자로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각	과	과	과	과	과	과	과

호	변경된 모교 주요부서 전화번호	화면호는 다음과 같다
530		
600		
320		
900		
600		
640		
030		
040		
050		
070		
076		
62		
66		
80		
90		
05		
15		
25		
30		
40		

電話番號 전면변경

電子式 교환기로 교체

기	관	명	전화번호	기	관	명	전화번호
총무	장	실	880-5001	법사	장	실	880-7530
부대	장	실	880-5004	과대	장	실	" 7600
교원	원	실	880-5007	법대	장	실	" 7820
교과	부	실	" 5008	과대	장	실	" 7900
학연	처	실	" 5009	과대	장	실	" 5600
연인	부	실	" 5010	과대	장	실	" 5640
기	부	실	" 5011	과대	장	실	" 5030
사	부	실	" 5016	과대	장	실	" 5040
도	부	실	" 5017	과대	장	실	" 5050
인	부	실	" 5012	과대	장	실	" 5070
사	부	실	" 5018	과대	장	실	" 5076
자	부	실	" 5013	과대	장	실	" 5162
자	부	실	" 5280	과대	장	실	" 5166
가	부	실	" 6001	과대	장	실	" 5080
경	부	실	" 6300	과대	장	실	" 5090
공	부	실	" 6500	과대	장	실	" 5105
	부	실	" 6800	과대	장	실	" 5115
	부	실	" 6900	과대	장	실	" 5125
	부	실	" 7001	과대	장	실	" 5130
	부	실	" 7450	과대	장	실	" 5140

年會費 내주시분

理事 10월 6일 11월 6일까지
會員 8월 30일 11월 6일까지

理事

▲李純炯 서울의대기
생물학과교수

一般會員

- ◇工科大学 ▲朴德七 화성정보일
리제자소사장
▲河俊煥 한국공무원연
지니어링회장
▲農科大学 ▲姜仁穆 서울농약(주)
상무
◇文理科大學 ▲金桂珠 한국외국어
대학교수
▲金錫模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金鍾協 동덕여대총
장
▲金寶弼 한국거미연
구소장
▲羅炳旭 경북대문과
대학교수

◇人文大學

▲김은식 ▲박범서

◇社會大學

▲정문식 ▲안진선

◇自然大學

▲장영구 ▲박동환

◇家政大學

▲김순진 ▲박영숙

◇經營大學

▲홍경희 ▲박영숙

◇工科大学

▲장영원 ▲장영원

◇法科大学

▲김상수 ▲김병철

◇師範大學

▲김영호 ▲김영호

◇農科大学

▲김영호 ▲김영호

◇商科大学

▲김영호 ▲김영호

◇藥學大學

▲김영호 ▲김영호

◇醫科大學

▲김영호 ▲김영호

◇藥學大學

▲김영호 ▲김영호

◇醫科大學

▲김영호 ▲김영호

◇藥學大學

▲김영호 ▲김영호

◇醫科大學

▲김영호 ▲김영호

◇藥學大學

▲김영호 ▲김영호

※ 人名 밑의 괄호 안
숫자는 각 동문들의
卒業年度임.

美術大學

▲고병복 ▲유은주
▲이계안 ▲이철자
▲이용환 ▲황창배

法科大学

▲강성복 ▲강원일
▲김만석 ▲김영호

師範大學

▲김영호 ▲김영호

農科大学

▲김영호 ▲김영호

商科大学

▲김영호 ▲김영호

藥學大學

▲김영호 ▲김영호

醫科大學

▲김영호 ▲김영호

藥學大學

▲김영호 ▲김영호

醫科大學

▲김영호 ▲김영호

藥學大學

▲김영호 ▲김영호

醫科大學

▲김영호 ▲김영호

藥學大學

▲김영호 ▲김영호

醫科大學

▲김영호 ▲김영호

藥學大學

▲김영호 ▲김영호

會費납부에 뜨거운 精誠을...

歲暮가 가까와 옵니다. 年末이 되면
그동안 다하지 못한 여러가지 일들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동안 年會費를 납
부하지 않은 同門들께서는 이달 안으
로 내주셔서 同窓會 활성화에 寄與해
주시기 바랍니다.

會費 내역

- 一般會員 1만원
- 理 事 5만원
- 常任理事 10~20만원
- 監 事 30만원
- 副會長 50만원
- 會 長 100만원

商科大学

▲김영호 ▲김영호

藥學大學

▲김영호 ▲김영호

醫科大學

▲김영호 ▲김영호

藥學大學

▲김영호 ▲김영호

醫科大學

▲김영호 ▲김영호

藥學大學

▲김영호 ▲김영호

醫科大學

▲김영호 ▲김영호

藥學大學

▲김영호 ▲김영호

醫科大學

▲김영호 ▲김영호

藥學大學

▲김영호 ▲김영호

醫科大學

▲김영호 ▲김영호

藥學大學

▲김영호 ▲김영호

醫科大學

▲김영호 ▲김영호

藥學大學

▲김영호 ▲김영호

醫科大學

▲김영호 ▲김영호

藥學大學

▲김영호 ▲김영호

醫科大學

▲김영호 ▲김영호

藥學大學

▲김영호 ▲김영호

醫科大學

▲김영호 ▲김영호

藥學大學

▲김영호 ▲김영호

醫科大學

▲김영호 ▲김영호

藥學大學

▲김영호 ▲김영호

醫科大學

▲김영호 ▲김영호

藥學大學

▲김영호 ▲김영호

醫科大學

▲김영호 ▲김영호

藥學大學

▲김영호 ▲김영호

醫科大學

▲김영호 ▲김영호

藥學大學

▲김영호 ▲김영호